

21세기 문화와 개혁 신앙

김영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장/조직신학)

머리말

21세기의 문화는 하나님이 세상 창조시에 인간에게 내리신 문화적 명령(cultural mandate)이 실현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문화적 명령은 다음과 같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 1:28).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도구를 사용하는 지혜를 주셔서 자연의 재난과 맹수의 위협에서 쫓기고 원시적 동굴에서 살던 인간은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오늘날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의 창조를 다스리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인간은 의학 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을 늘리면서 전 지구촌에 충만하기 시작했다. 고대 그리스인의 평균 수명이 19세, 16세기 유럽인의 평균 수명이 21세였다. 그러나 의학 기술의 발달로 20세기 첫 해 1901년 미국인의 평균 수명은 47세였고, 생물학 분야에서 유전자 공학(genetic engineering)이라는 혁명적인 성과를 거둠에 따라 1999년 미국인들의 평균 나이는 76세로 늘어났다. 영국의 미래 재단은 2010년에 태어나는 사람의 평균 수명을 120세로, 미국의 과학 저널 사이언티픽 아메리카는 2050년 인류의 평균 수명을 150세로 전망하고 있다.¹

더욱이 인간은 컴퓨터에 의한 정보 통신 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다가온 21세기에 인류는 고도의 문화적 삶을 누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¹ “미리 보는 새 천년, 넘치는 백살청춘 ... 세계는 ‘장수 무대’”, 『동아일보』 2000년 1월 13일 A23면. 아시아의 대국 중의 하나인 인도 인구가 2000년에 들어와 10억을 넘어섰고 2050년에는 중국의 인구를 앞지를 것을 전망되고 있다. 이런 아시아의 저개발 국가의 인구 증가도 의료 기술에 영향을 힘을 입은 것이다.

1. 21세기 문화의 다섯 가지 특징

21세기 문화는 다음 다섯가지로 특징화된다. 그것은 사이버 문화, 생명의 문화, 생태 문화, 종교 문화, 공존공영의 문화이다. 이들 문화의 특징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1) 사이버 문화

정보 기술의 발달은 사회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 변화의 원동력은 고도로 지식화된 집약적 생산 기술과 그에 따른 정보 처리 전달 기술의 전 지구적 확대이다. 그것은 제2의 물결 사회인 대량 생산과 대중 소비와 국가 경제 체제에서 제3의 물결 사회인 소량 생산, 고부가가치, 유연 생산, 소중화(de-massified)의 사회, 범지구적 경제 체제로의 전환이다. 정보와 지식은 범지구적 산업 재구조화의 동인이 됨으로써 제3의 권력 자원이 되었다. 문화 활동에서, 기업 조직 안에서, 국내 및 국제 관계에 있어서 지식과 정보의 생산과 흐름에 따른 권력의 대이동이 시작되었다고 토플러(Alvin Toffler)는 피력하고 있다. 여기에서 권력은 그 전통적인 지주였던 물리적 힘(군사력), 재산(경제력)에다 또 하나의 새로운 지주로 보태자면 지식과 정보이다. 권력은 이 세 가지 자원의 역학 관계에 따라서 이동하고 있다.²

정보와 지식은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이동한다. 그리하여 육체 노동력, 토지, 지폐 자본같은 실물의 소유와 재생산 분배를 둘러싼 계급간, 국가간, 지역간 간격과 갈등은 무의미해진다. 사이버 문화에서는 지식 계급(cognotariat)이 무산 노동 계급(proletariat)을 대체하고 화폐의 양이나 그 귀속과 이전은 가상 공간에 나타나는 전자 부호의 상징으로 대체된다. 사이버 문화 시대에서 물리적 파워는 그 영향력을 사회 권력의 새로운 원천인 정보와 지식에 의하여 대체된다.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은 21세기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다. 그러나 “뉴 미디어는 대체가 아니라 보완이며, 올드 미디어(old media)가 당장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 시대에 뉴 미디어(new media)는 성장해도 좋이는 살아

² Alvin Toffler, *Powershift*, 「권력 이동」(서울: 한국 경제 신문사, 1990), 24-45.

남을 것이다. 브리태니카 백과 사전 한 질이 작은 CD에 들어가듯 미디어 형태도 바뀐다. 그러나 본질은 그대로다. 친한 사람에게 직접 펜을 들어 편지를 쓰는 행위도 계속된다. “종이전 인터넷이건 최고 언론인, 창조적인 예술가는 계속 진가를 발휘할 것이다.”³ 통신 수단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는 문화 공간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켰다. 빠르고 개방적인 네트워킹의 인프라(infrastructure)인 광통신망 구축은 전자 상거래 등 사이버 경제와 사이버 문화를 탄생시키고 있다.

디지털 문화는 기존 수직적 네트워크를 해체하고 남과 함께 짜는 수평적 그물을 창출한다. 디지털 문화는 원자(atom)가 아니라 비트(byte)에 의하여 지배되는 세계이다. 아톰(atoms)의 원리가 실제로 만지고 경험하는 아날로그의 세계를 창출했다면, 비트(byte)의 원리는 실제 이상의 “하이퍼 리얼”(hyper-real)한 것으로 다가오는 디지털 세계를 창조한다. 디지털이 가져온 세계의 변화상이란 PC 통신과 인터넷, 그리고 PCS(개인 휴대 통신)와 컴퓨터를 매개로 한 “사이버 커뮤니케이션”(cyber-communication)의 일상화이다. 물리적인 육체 노동이 컴퓨터를 이용한 사이버 워크(cyber-work)로 일이 양태가 급속히 바뀌고 있으며, 전자 상거래가 경제 행위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돈은 현금 개념에서 온라인 망을 타고 달리는 사이버 머니(cyber-money)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디지털 문명 전도사를 자처하고 있는 미국의 네그로폰테는 개인 휴대 통신은 단순한 전화가 아니며 지금은 주로 음성 서비스로 제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확장 가능성이 열린 컴퓨터로 보고 있다. 그는 비트로 이루어진 컴퓨터와 아톰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만남을 말하면서 “디지털 인간”(digital humans)을 역설한다. 오늘날 인간은 원자로 구성된 자연 생태 환경 안에서 살고 있음과 동시에 점차 가속적, 확장적으로 비트화해 가는 ‘커뮤니케이션-미디어 환경’ 안에서 살고 있다. 이 두 환경은 서로 배타적이기보다는 통합되길 요구하며 실제로 비트와 아톰의 결합 속에서 하나의 ‘에코-커뮤니케이션 환경’(eco-communication environment)을 이루어 가고 있다.⁴

³ 만프레드 란슈타인, “디지털 시대에도 중요한 건 사람”, 『조선일보』 2000년 4월 10일, 23면.

⁴ 정진홍, “디지털 문명 전도사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비트의 세계’가 행복을 안겨 주리라”, 『조선일보』 1999년 4월 22일, 19면.

2) 생명의 문화

21세기는 생명 문화의 세기이다. 유전자의 인위적인 조작 기술 및 이를 응용한 생산 활동을 하는 바이오테크(Biotech)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생명 공학을 이용한 제품들이 농산물과 의약품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생명 공학을 이용한 에이즈 백신이 개발되고 있으며 암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다. 독감에 대한 유전자 예방 주사가 개발되고 있다. 유전자를 이용한 치료제는 인체 면역 체계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유전자 치료법은 암세포를 억제하는 면역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인체의 자연 치료 능력을 회복시켜 준다. 그것은 암세포와 싸워 이기는 유전자를 인체 외부에서 배양하여 인체에 주사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유전자 지도의 해독과 더불어 유전자 정보를 이용하면 1시간 안에 각종 질병의 유무를 측정하는 유전자 칩(genetic chip)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현대 인간은 유전 공학을 이용하여 멸종 위기의 희귀종 동식물의 종(種)을 보존하며 더 나아가 인간에게 유용한 유전자 변형 동식물을 만들어 내어 이를 복제술을 통해 대량 생산해 냄으로써 인류의 식량난이나 질병 치료에 획기적인 도움을 받고자 한다. 지방질이 줄어든 고기가 개발되고, 잘 상하지 않는 채소가 나온다. 홍수에 잘 견디는 벼, 포기당 2배 이상의 쌀알이 열리는 슈퍼 쌀, 병충해에 강하고 향긋한 냄새가 나는 향기미 등이 연구된다. 이를 통해서 벼 생산량도 대폭 늘어난다.

21세기 생명 공학의 최대의 성과는 미국과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생명의 신비를 캐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이다. 게놈(Genome)이란 생물의 모든 유전 형질 정보가 담겨 있는 생체 물질을 말한다.⁵ 게놈 프로젝트

⁵ Jeremy Rifkin, *The Biotech Century* (1998), 전영택, 전병기 역, 『바이오테크 시대』 (서울: 민음사, 1999), 32-42. 게놈(Genome)이란 유전자(gene)와 염색체(chromosome) 두 단어의 합성어로서 생물 세포에 담긴 유전 정보 전체를 뜻한다. 유전 정보는 DNA에 담겨 있고, DNA는 A(아데닌) C(시토신) G(구아닌) T(티민) 등 4종류의 염기를 가진다. 사람의 몸에는 약 30억개의 염기가 있다. 염기 배열이 잘못되면 생리 기능에 이상이 생겨 몸에 질환이 발생한다. 이 프로젝트로 인간이 얻는 정보는 빙산의 일각이다. 30억개 염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사람마다 염기 서열이 어떻게 다른지 밝혀져야 비로소 완벽한 생명의 설계도가 마련되는 것이다.

는 생물의 모든 유전자 정보를 밝히는 작업이다. 인간의 경우 유전자 정보는 모두 4개의 염기가 60억씩 배열된 상태로 저장되어 있다. 이중 두 사람끼리 염기 서열이 다른 숫자는 불과 5백만 개, 전체의 0.08% 밖에 되지 않는다.⁶ 인간의 유전자(DNA)에는 인체에 관한 모든 역사가 축적되어 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어떤 변이가 생겼는지 예측이 가능하다. 이것은 수천개의 인체 유전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여 한번에 이들 유전자들의 특성을 읽어낼 수 있는 바이오 칩(bio-chip)의 실용화를 통해서 실현된다. 바이오 칩은 개인의 유전자 변이나 이상 여부를 쉽게 진단할 수 있게 하고 암, 고혈압 등 난치성 질병과 당뇨 등 유전적 질병을 분자 수준에서 치료하는 유전자 요법도 가능하게 만들 전망이다. 1990년에 미국에서 최초로 유전자 치료가 실시되었다. 유전자 결함으로 면역력이 약해진 4세 여자 어린이에게 정상 유전자를 성공적으로 삽입한 것이다. 유전자 치료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성과를 활용해 21세기 최첨단 의학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⁷

1997년, 영국 로슬린 연구소의 월무트 박사가 체세포 복제에 의한 복제 양, 돌리(Dolly)를 탄생시킨 이래, 인간은 정자와 난자의 수정없이 체세포 핵이식(somatic cell nuclear transfer) 복제 기술을 통한 생명체 복제(life cloning)에 본격적으로 접어들고 있다.⁸ 체세포를 통한 배아 복제는 대체 세포나 조직을 생산함으로써 난치병 치유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체세포 복제는 모든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인간 복제가 아닌 배아 복제의 초기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이용되는 단계에 도달하고 있다. 그것은 최근 미국의 존스 홉킨스대와 위스콘신대, 그리고 제론(Geron)사와 ACT(Advanced Cell Technology)사에서 인간 배아에서 특정한 기관, 심장, 간, 신장, 뇌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는 幹세포를 분리 배양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것은 장기 부족 현상, 장기 밀매 및 생체 거부 반응 등 갖가지 문제점을 수반하는 대체용 장기를 생산하지 않더라도 세포나 조직 차원에서 난치병을 치유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고 있다.⁹

오늘날의 생명 공학은 실제로 인간 복제(human cloning)를 시도하고 있다. 이것은 1993년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 메디컬 센터에서 인간 17개 배아의 세포를

⁶ "21세기, 질병은 반감, 식량은 두배", 『조선일보』 1998년 1월 1일, 14면.

⁷ Rifkin, 35-42.

⁸ 박세필, "생명체 복제는 21세기에 꿈의 기술로 각광을 받을 것인가?", 『신앙과 학문』(1999년 가을), 11-15.

⁹ 박세필, 17.

분리하여 48개의 배아를 산출한 데서부터 일어났다. 복제는 인간 배아(胚芽)¹⁰들이 분열되어 임신하는 동안에 유전적으로 동일한 실체를 만들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¹¹ 이것은 인간이 유전 공학이라는 문명의 이기를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 신의 영역에까지 사용하려는 교만한 행위이다. 여기서 윤리적인 문제가 야기된다.

3) 생태 문화

21세기는 생태의 세기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지난 세기에 일어난 생태계 파괴에 대한 인간의 반성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세기의 과도한 개발과 자연 환경에 대한 착취로 인하여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기상 이변과 물과 공기의 오염, 산림의 황폐화, 생물종의 다양성 감소가 야기되고 있다. 2000년 유엔 지구 상태의 보고서는 지구 생태계를 산림, 생수 체계, 연안 유역, 잔디 영역과 농업 지역 등으로 나누어 보고하면서 심각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¹²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생태계 보존을 위한 운동들이 야기되고 있다. 문화 전반에서 녹색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지금 세계적으로 첨단 기술과 자본의 힘, 그리고 정책의 변화로 환경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낙관이 팽배해 있다. 그러나 생태 문화는 보다 근본적인 방향 전환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각성이 환경 운동가들 사이에 펼쳐지고 있다. 환경 오염에 대한 이성적인 인식에서 더 나아가 감성적으로 느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자본주의 산업 질서에 대항하고 그것을 견제하는 환경 친화를 생활화하고 정책화하는 일이다. 이산화탄소 과다 배출, 에너지 낭비, 대규모 기업농, 식품종 종자 수출, 목재 산업과 관련 산업을 위한 삼림 벌채 등의 배후에는 언제나 다국적 기업들이 있다.

¹⁰ 배아란 과학자 공동체에서는 수정 후 2주부터 인간의 모든 기관이 형성되는 8주까지 발달된 단계를 일컫는다. 그러나 배아 복제(embryo cloning)에서 배아란 전배아(pre-embryo), 즉 착상 이전의 수정란을 말한다. 그러니까 임신 시작부터 원시선(the primitive streak)이 출현하는 수정 후 14일까지의 배아를 말한다. 개체 복제(individual cloning)란 이러한 배아를 여자의 자궁에 착상시켜 하나의 완전한 개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캠브리지의 도슨처럼 전배아의 시점을 수정 후 15일까지로 규정하는 학자도 있으나 일반적인 견해를 따른 것이 원만하다고 생각한다. K. Dawson, "Glossary," P. Singer et., ed., *Embryo Experiment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248, 252.

¹¹ *Cambridge Quarterly of Health Ethics*, Vol. 4, No. 3 (Summer 1995), p. 268.

¹² "How to Save the Earth," *Time*, Special Edition, 2000년 4-5월호, 18-24.

오늘날 대규모 기업농과 화학 비료로 대표되는 녹색 혁명은 1972년 로마 클럽이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에서 경고한 식량의 위기를 극복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기업농은 토양의 황폐화, 에너지 소비의 극적 증가, 수출용 단일 작물 재배에 대달리게 되는 제3세계 농민들의 궁핍화, 작물의 질적 저하 등 순한 병폐를 낳았다. 무역 자유화와 기업형 농업 정책을 강력히 지지해 온 미국의 농무부는 1998년 “소농의 공적 가치”라는 획기적 보고서를 통해 생물 다양성과 환경적 혜택, 자립성과 공동체의 책임성 등의 이점을 들어 소농을 계속 육성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유전자 조작 식품 규제도 이러한 자본주의적 농업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¹³

최근 스페인에서는 “어두운 하늘 찾기”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이것은 도시의 과도한 조명과 에너지 낭비 및 술집들을 제한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 짐승과 새들을 조명과 소음으로부터 보호하려 한다는 점, 그리고 “차 없는 캠퍼스”, “차 없는 도시” 운동 등과는 달리 사람만이 아닌 동물의 입장에서 인간의 문명을 되돌아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 단계 높은 환경 운동이다.¹⁴

4) 종교 문화

19세기의 포이에르바허, 마르크스, 니체와 프로이드는 인류의 이성의 발달과 더불어 종교는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예언했고, 하비 콕스는 1960년대 이들의 사상을 그대로 수용하며 세속 신학을 주창했고 벤부렌 등 사신 신학자들은 신의 죽음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러한 예언은 틀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 사회에서 지난 수십년간 제도적인 기독교의 쇠퇴와 더불어 시민들의 교회 출석률이 매우 낮고 성직자 지망생이 계속적으로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종교의 소멸화(the extinction of the religion)는 오지 않았다. 오늘날 기성 종교 안에서 영성 운동, 종교권 밖에서는 개인의 초월을 추구하는 뉴에이지 형태의 종교 운동, 불교, 도교, 힌두교 등 동양 종교의 서양 유입 등이 일어나고 있다. 오늘날 서구의 기독교가 쇠퇴기에 접어든 시점에 불교, 도교, 힌두교 등 동양 종교가 종교적인 공백기를 메우고 있다.

미국 정치학자 허팅턴(Samuel Huntington)은 공산주의의 붕괴에 따라 종교

¹³ “어두운 하늘 찾기” 원초적 자연 ‘경외’ 절실”, 『국민일보』, 2000년 4월 21일 23면.

¹⁴ 상동.

가 이념을 대체할 것이고, 21세기의 국제 분쟁은 종교 때문에 빚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세계사는 국가간의 대립과 이데올로기간의 대립을 끝내고 이제 문명간의 대립 단계로 들어섰다. 그는 21세기를 종교에 기반한 서구와 비서구 문명간의 갈등 시대라고 보고 있다.¹⁵ 그는 국제 문제에 있어서 현대의 지정학적(地政學的)인 갈등에 대한 종말을 선언하고 있다. 21세기의 국가간의 갈등은 “문화 지리적인 마찰” 내지 “문명간의 충돌”이라는 것이다. 헌팅턴은 다음과 같이 피력한다: “미래의 전선은 서구와 동아시아의 유교 사회나 다른 회교국간의 국경같은 문명간의 경계선들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으로 등장한 근대 국제 체제하에서의 갈등은 처음에는 군주들간에 일어났고, 다음에는 국가들간에, 금세기에는 이데올로기의 싸움이었다. 자유 민주주의와 마르크스-레닌주의간의 오랜 냉전을 포함, 이런 갈등들은 서구 사회의 냉전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제 냉전은 끝났다. 국제 정치는 서구에서 그 중심을 옮겨가고 있다. 지금부터 세계 정치의 중심은 서구와 비서구 문명의 상호 작용이 될 것이다. 이러한 미래 갈등의 전선은 유라시아 지역에서 분명하게 보인다. 유럽의 이데올로기적인 분할이 끝나자, 서구 기독교 신앙, 그리스 정교회와 이슬람교간의 문화적 분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서구의 개인주의, 자유주의, 인권, 평등, 자유, 법률, 민주주의, 자유 시장, 정교 분리같은 서구 개념들은 기본적으로 이슬람, 유교, 힌두교, 불교 문화권의 기본 개념들과는 다르다. 서구 가치를 보편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많은 이슬람 국가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원리주의와 같은 과격한 행동을 자극할 뿐이다.”¹⁶

헌팅턴은 그 실례로 중동에서는 아랍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실패로 이슬람화 운동이 기세를 북돋고 있으며, 인도는 힌두교화 위협에 있으며, 일본에서는 ‘신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구호가 들리며, 천안문 사태 이후 인권 탄압에 대한 미국과 서구의 항의, 등소평은 미국에 “새로운 냉전”의 가능성을 경고한 사실을 들고 있다. 그래서 헌팅턴은 이슬람, 유교 독재와 인종적 원리주의가 21세기 서구 자유 민주주의가 맞이해야 할 세 가지 문명 갈등의 도전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서구와 러시아가 냉전 이후 군사력을 감축하고 있는 데 비해 이슬람, 유교, 힌두교와 불교권에서는 군사력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문명 갈등의 시대에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는 비서구의 인권 탄압 지역에 적극적으

¹⁵ Samuel P.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1996), 이희재 역, 『문명의 충돌』 (서울: 김영사, 1997), 243-410; 사무엘 헌팅턴, “21C는 서구-비서구 문명 갈등 시대”, 『조선일보』, 1993년 6월 28일, 5면.

¹⁶ 헌팅턴, 『조선일보』 1993년 6월 28일, 5면.

로 개입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헌팅턴의 견해는 국제 정치의 분석에 종교를 중요한 요소로 도입한 것으로 좋은 시각이다. 그러나 그의 견해는 냉전의 해체에 따라서 일어나는 부분적인 현상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이것을 보편화하여 지구상의 종교간의 갈등과 대립을 필연적으로 보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다.¹⁷ 독일의 하랄트 뮐러(Harald Müller)에 의하면 헌팅턴의 이론은 “서구를 공동의 적으로 삼아 유교 문명권과 이슬람 문명권이 동맹을 맺는 악몽이 현실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문명의 충돌, 그것은 강력한 대립, 다층적인 영토 분쟁, 확산일로에 있는 대량 살상 무기 때문에 중국에는 온 지구를 핵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 넣을지도 모른다. 끔찍한 시나리오이다.”¹⁸헌팅턴은 다양한 문명권이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문명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문명 다원주의는 끝나야 하고 단일 문명 국가를 세워야 하며 국경을 넘어선 선교 활동은 중지되어야 하고 종교를 확산시키려는 선교든, 인권이든 국가와 신앙의 분리, 여성 해방 등 문명적 성취를 확산시키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명간의 경계를 명확히 그어 다른 문명과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면적을 최소화하는 정치만이 숙명적인 전 지구적 대결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이러한 헌팅턴의 견해는 서구 문명 우월주의적 사고요, 이분적인 사고로서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통용될 수 없는 타당하지 못한 이론이다.

현재 중동 지역, 발칸 반도, 인도네시아처럼 종교간 대화와 이해의 부족으로 커다란 분쟁과 전쟁이 지속되는 곳이 많지만, 반면 남 아프리카 공화국이나 필리핀, 북 아일랜드처럼 여러 종교와 종파가 연합해서 분규를 종식시키고 민주 국가를 건설하고 있다. 하랄트 뮐러는 정교 문명의 핵심인 러시아와 유교 문화의 핵심인 중국, 그리고 이슬람의 핵심인 터키간의 반서구적 결탁은 보이지 않는다고 피력한다. “이슬람은 앞으로도 복수주의적일 것이며, 아시아도 마찬가지이다. 이들간의 반서구적 동맹은 즉흥적, 항목별, 일시적일 것이다. 위기가 닥치면 즉흥적 동맹이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즉흥적 동맹에서 지속적인 세계 정치 조직이 생겨날 수는 없다.”¹⁹ 21세기 우리는 종교간의 대립과 갈등을 필연적으로 보기 보다는 서로 관용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고 공존하는 것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¹⁷ 한스 쾅, “교회는 쇠퇴해도 일반인 ‘종교 관심’은 더 늘 것”, 세계 석학 21인이 본 21세기(17), 『조선일보』 2000년 1월 31일, 19면.

¹⁸ Harald Müller, *Das Zusammenleben der Kulturen* (Frankfurt, 1998), 이영희 역, 『문명의 공존』, (서울: 푸른 숲, 1999), 19.

¹⁹ Harald Müller, 271.

5) 공존·공영의 문화

20세기에는 성장과 냉전의 논리에 의하여 세계 경제는 양극화의 현상을 초래하였다. 20세기는 제국주의와 전체주의의 대두에 의하여 두 차례나 세계 대전을 치룬 전쟁과 파괴의 세기였다. 그리고 세계 대전 후에는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양대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세계가 동서 진영으로 양분되었다. 그리하여 지난 20세기는 기술 전쟁이 증대되면서 세계의 경제 구조는 부자와 가난뱅이, 부국과 빈국의 격차가 커져서, 빈부 양극화가 심대해지고 있다. 아직도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12억명의 전세계 극빈층(60억 세계 인구의 20%)이 살고 있다. 탈냉전 후 경제, 문화, 정보, 통신 분야에서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그 혜택은 주로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 지금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고 3분의 1(23억명)은 하루 1달러 이하의 수입으로 살고 있다. 세계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최빈국이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3%에 불과하다.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은 전화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 이것은 지난 세기의 세계 문화와 경제 구조가 항상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지배당하면서 냉전 논리 속에서 동서 대립을 가져오고, 그 가운데서 국제적인 협력이 제대로 되지 못한 데 기인하는 후유증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1세기는 이제 이데올로기의 대립에 의한 냉전의 시대가 지나가고 공존과 공영의 문화가 산출될 것이다. 헌팅턴은 21세기를 이데올로기의 갈등 대신에 서구와 비서구 문명의 갈등, 즉 기독교 문화권과 유교, 이슬람교, 불교권 문화권의 갈등 시대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유엔이나 정부나 국제적인 민간 기구들을 통하여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0년 4월에는 쿠바의 수도 하바나에서 제3세계 국가 모임인 77그룹 정상 회담이 개최되었다. OECD나 G7이 부국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77그룹은 빈국의 모임이다. 이 모임이 개최된 이유는 냉전이 종식되고 세계화가 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도국과 선진 공업국 간의 빈부 차이는 오히려 증대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서였다. 쿠바에서 모인 77그룹 정상 회담은 선진 기술의 공유, 개도국에 대한 투자와 원조 확대, 부채 탕감의 요청, 유엔과 세계은행그룹 및 세계무역기구에 서의 발언권 강화 등을 요구했다.²⁰

²⁰ 박상식, "77그룹 정상 회담을 보고", 『조선일보』, 2000년 4월 18일, 6면.

이에 대하여 선진국은 후진국의 경제 발전 부진의 원인을 보호 무역주의, 대체 산업 중심 개발 계획, 정부의 경제 간섭, 정치인, 관료의 부패 등에 있다고 보고 시장 경제 제도 및 자유 무역주의 도입, 환율의 자율화, 부패 척결 등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후진국은 남북간 빈부 격차가 확대되는 이유를 세계 무역 구도가 선진국에 유리하고 국제 경제 기구의 정책이 선진국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2000년 4월 17일 세계은행(IBRD)과 국제통화기금(IMF)도 춘계 회의를 마치고 성명을 발표하면서 선진국들이 개발 도상국들의 수출 확대를 위해 국내 시장을 더욱 개방하고 최빈국에 대해 부채 탕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세계은행 “개발위원회”는 성명서에서 “선진국들은 개발 도상국들의 수출품에 대해 관세 면제와 쿼터 폐지 등의 조치를 포함, 시장 개방폭을 확대해야 하며, 최빈국에 대한 부채 탕감도 가능한 한 빨리 실제적인 조치로 나타나야 한다”고 촉구했다.²¹ 그리고 개발 위원회는 에이즈의 유행이 단순한 보건상의 문제가 아니라 개발 도상국의 경제 성장과 투자 환경을 해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아프리카에서 아시아, 카브리해 연안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에이즈를 막기 위해 선진국과 국제 기구가 에이즈 대책을 주요한 의제로 설정, 자금과 조직을 확충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국제 기구가 성명서를 내게 된 것은 세계비정부기구(NGO) 단체들의 항의 시위와 집회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단체들은 선진국 중심의 국제 회의 때마다 항의 집회를 벌여 인권, 환경 대책과 개발 도상국 문제를 제기하는 등 지구상의 소외된 계층에 대한 배려를 호소하는 활약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 세계 비정부기구 단체들은 1999년 말 시애틀에 있었던 세계무역기구(WTO) 반대 시위에 이어 이번 2000년 4월에는 워싱턴에서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합동 총회를 저지하였다. 세계화가 국가간 빈부 격차를 더욱 확대시킨다며 일주일 쯤 반대 시위를 벌이면서 “글로벌 정의를 위한 동원”이라는 NGO의 활동도 선진국 주도의 세계화에 제동을 걸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NGO에는 “주빌리 2000” 등 종교 단체, 지구의 친구들 등 환경 단체, 미국의 AFLCIO 산별 노조, 학생 단체 등이 중심이 된 사회주의자, 동물 권리 보호론자, 유기농법 주창자, 채식주의자, 그리고 무정부주의자들로서 100여개의 약 1만 5천명의 회원들이 있다.²²

이들은 부자 나라와 거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IMF와 IBRD의 잘못된 경제

²¹ “IBRD, INF ‘최빈국 부채 탕감해야’ 한 목소리”, 『조선일보』, 2000년 4월 19일, 11면.

²² “The New Radicals,” *Time*, April 24, 2000, 32-36.

정책이 빈국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하고 있다.²³ 세계화에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을 묶어 주는 끈은 거대한 조직에 대한 불신이다. 반세계화(anti-globalism)를 부르짖고 있는 이들 NGO들은 거대한 조직을 불신하고 개인들이 힘을 갖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 21세기에는 이처럼 나라간의 빈부 차이의 해소를 위한 국제적인 기구가 생기고 이러한 기구를 통한 갈등과 격차의 해결의 노력이 크게 진전될 것이다.

2. 21세기 문화에 대한 개혁 신앙의 과제

1) 기독교적 사이버 윤리와 인터넷 선교

만프레드 란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도 중요한 것은 여전히 사람이다.” “새로운 미디어 탄생 주기가 1000년에서 수백년, 다시 수십년으로 단축되면서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정보가 생산 활동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엄청난 빠르기로 진행되는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공통처럼 될 것이다.”²⁴ 사이버 공간에서는 익명성을 이용한 포르노물과 폭력물이 정보의 내용을 지배할 가능성이 많다. 특히 청소년들은 이러한 충동적인 정보물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사이버 공간에서 열린 광장은 이용자들이 만나는 장소요, 질문과 답변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열린 소통의 장이다. 그러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감정적인 대립과 인신 공격, 심지어는 언어 폭력의 장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인터넷 바다가 욕지거리 바다가 되고 있을 정도이다.²⁵ 폭력 난동까지 일삼는 광적인 축구팬을 지칭하는 훌리건(hooligan)처럼 사이버상에서 폭력적인 언어를 집단적으로 구사하는 사이버 훌리건들이 나타나고 있다.²⁶ 이들은 인터넷을 광적으로 좋아하며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즉각 독설과 입에 담지 못할 험담을 하는 등 폭력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정보를 받는 자들의 컴퓨터 체계를 파괴해 버리는 컴퓨터 바이

²³ “NGO ‘워싱턴 회의’ 서도 큰 활약”, 『국민일보』, 2000년 4월 19일, 9면; “IMF, IBRD와 반세계화 운동”, 『조선일보』 사설, 2000년 4월 20일 2면.

²⁴ 만프레드 란슈타인, “디지털 시대에도 중요한건 사람”, 『조선일보』, 2000년 4월 10일, 23면.

²⁵ “‘익명의 그늘’이 선을 넘었다. 욕지거리 바다”, 『조선일보』, 2000년 7월 19일, 27면.

²⁶ “‘열린 소통의 장’에 언어 폭력만 난무”, 『고대신문』, 2000년 5월 8일, 4면.

리스 공격과 더불어 상대방의 정보 체계에 비밀리에 들어가 정보를 빼내는 해킹 등 각종 사이버 범죄가 난무하다.

지구촌을 강타한 신종 컴퓨터 바이러스는 해가 갈수록 그 파괴력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지구촌을 강타한 한 바이러스는 1991년 3월의 미켈란젤로(Michelangelo), 1999년 3월의 멀리사(Melissa), 1999년 4월 체르노빌 바이러스(Chernobyl Virus), 그리고 2000년에 접어들어서 미국과 독일과 영국을 강타한 러브 바이러스(The Love-Bug)²⁷이다. 정보의 바다는 무한한 보고가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기는 하나 동시에 엄청난 사이버 재난과 범죄가 득실하고 있는 정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재난과 범죄의 특징은 그것의 피해 규모가 순식간에 전 지구촌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사이버 문화에서 윤리는 중요하다. 인터넷 문화를 이끄는 10대와 20대의 올바른 네티켓(네티즌의 에티켓)을 정립해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인터넷 사용자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네티켓 사이트가 1만여 개가 있다. 최근에는 “네티켓 칼럼니스트”들도 생겨났다. 한국 사회에서도 인터넷 기술 뿐 아니라 네티켓 운동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네티켓 운동의 기본은 모든 사용자들이 실명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 윤리 운동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운동은 일상 세계에서 전개되는 윤리 실천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단지 네티즌을 중심으로 사이버 세계에서 전개되는 것이다.

사이버 공간도 어디까지나 인간이 조정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문제는 인간의 나쁜 의도에 의하여 일어난다. 이러한 사이버 세계는 신앙적으로 별천지가 아니라 여전히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영역이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적 명제를 말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이버 공간에서도 여전히 왕이시며 사이버 문화의 변혁자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행하는 사이버 행위도 여전히 일반 윤리의 규범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여전히 그 행위의 주체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사이버 인물(cyber character)이 사이버 공간에서 말과 행위를 하더라도 그 인물을 도입한 자는 바로 인간이다. 사이버 인물의 배후에는 반드시 실재 인간이 있는 것이다.

사이버 공간은 오히려 선교의 장이다. 1세기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로마 선교를 위해 군사의 힘을 이용하여 로마로 가는 길을 닦아 놓으셨지만, 오늘날에는 광속을 이용하여 순간적으로 전세계로 향하는 정보 고속도로를 닦아 놓으신 것이

²⁷ “Attack of the Love Bug,” *Time*, May 15, 2000, 36-42.

다. 여기에 인터넷 선교의 정당성이 있다. 무한한 정보의 바다는 선교학적으로 보면 선교의 길을 무한히 개척할 수 있는 선교의 바다요, 선교의 광장이다. 인터넷 선교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한 것을 인식한 나머지 요즘은 웹 공간에서 활동하는 기독교 문화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은 대중 문화 운동부터 복음성가 운동에까지 다양하다.²⁸

2) 신본적 생명 윤리

생명 공학은 인류에게 필요한 기술이면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 기술은 비도덕적으로 조작될 가능성이 있고, 개인의 유전적 고유성을 해칠 가능성과 우생학적으로 오용됨으로써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 또한 유전자 정보의 독점, 그리고 유전자 변형 동식물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데에 대한 우려가 크다. 머지않아 사람의 유전자 정보를 이용해 특정 질병에 걸릴 우려가 높은 사람을 부적격자로 판정하는 유전자 차별이 사회적인 증후군으로 나타날 것이다.

동식물의 복제 내지 유전자 조작 동식물이 생태계와 인간 생명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동식물의 복제에 대해 가급적 신중을 기하며, 유전자 변형 동식물에 대하여 그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될 때까지 일종의 유예(moratorium)를 선언할 필요가 있다.²⁹ 이러한 생명 복제는 윤리적인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그것은 동식물 복제술이 생태학적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³⁰ 유전자 변형 동식물

²⁸ 대표적인 웹 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1. 기독교 문화 사이트 "jesus tv"(<http://www.jesus.or.kr>): 대표적인 기독교 문화 인터넷 방송으로 선교 목적의 음성과 동화상, 문자로 된 멀티미디어로 제작된 내용을 인터넷 기반을 이용한 사이트. 2. 기독교 문화 카페 "좋은 땅" (<http://myhome.netgo.com/rache92/default.htm>): 기독교 문화 정착을 위한 이념적 문화 운동 사이트. 3. 복음과 문화-기독교 세계관으로 명하는 문화(<http://user.chollian.net/~finehope>): 이념적 문화 운동을 지향하고, 특히 뉴에이지 운동 등 대중 문화 비평. 4. 연극 선교 단체 예공(<http://www.emptyspace.net>): 기독교 연극의 활동 5. 가스펠 송(<http://www.gospel.co.kr/bigtree/index.html>): 복음성가의 모든 것 6. 기독교 세계관에 의한 문화 변혁 (<http://www.ccp.co.kr>) 6.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http://www.cemk.org>) 7. 기독교환경운동연대(<http://www.peacenet.or.kr/~kcems>) 등 ("기독교 계통 웹 문화 변화 조직", 『새누리신문』, 2000년 4월 2일).

²⁹ 김상득, "윤리학적 관점에서 본 생명 복제", 『신앙과 학문』, (1999년 가을), 제 4권 3호, 27.

복제는 자연에 새로운 유전자를 지닌 동식물 종(種)의 출현을 가져올 뿐 아니라 특정 유전자를 지닌 동식물의 복제로 인하여 자연 질서가 지니고 있는 유전적 다양성을 훼손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유전자 변형 식품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직도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단계에서 선불리 이를 허용할 경우 질병 감염 등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사태가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쥐나 소, 돼지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의학적으로 거부 반응이 없도록 만들어진 동물 장기 조차도 인간에게 이식될 경우 그 장기가 가져올 질병과 유전자적 교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식할 수 없다.

그리고 인간 개체 복제는 판에 박은 봉어빵처럼 핵 제공자의 복사판으로 개인의 자아 정체성의 상실케하고, 무성 생식으로써 자녀 출산의 의미를 상실케 하며,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 등의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³¹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대체로 수정 후 14일까지의 전(前)배아(胚芽)에 대한 연구를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³² 그 이유는 인간의 개체성은 착상과 더불어 시작한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착상 전 배아는 도덕적 지위를 지니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보통 수정 후 14일 착상 때 원시선(primitive streak)이 나타나야 비로소 하나의 개체가 형성되는데 전배아는 미결정의 단계로서 여러 개체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진보주의자들은 보고 있다.³³

두 개체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아 전혀 새로운 유전자를 지닌 전 배아조차 도덕적 지위를 지니지 못한다면 유전적 독립성 조차 지니지 못하는 복제된 배아는 말할 것 없이 도덕적 지위가 없다고 진보주의자들은 보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서

³⁰ I. Wilmut and D. Bruce, "Dolly Mixture," D. Bruce & A. Bruce, ed., *Engineering Genesis: The Ethics of Genetic Engineering in Non-Human Species* (London:Earthscan Publications Ltd., 1998), 76ff.

³¹ L. R. Kass, "The Wisdom of Repugnance," L. R. Kass & J. Q. Wilson, *The Ethics of Human Cloning* (Washington, D. C. The AEI Press), 33, 38, 42

³² United Kingdom,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Security, "Report of the Committee of Inquiry into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The Warnock Committee Report), T. L. Beauchamp & L. Walters, ed., *Contemporary Issues In Bioethics* (California: Wardsworth Publishing Company, 1989), 499

³³ M. Mori, "On the Concept of Pre-embryo. The Basis for a New 'Copernican Revolution' in the Current View about Human Reproduction," J. Harris and S. Holm, ed., *The Future of Human Reproduction* (Oxford: Clarendon Press, 1998), 45; John Harris, "In Vitro Fertilization: Ethical Issues," *Philosophical Quarterly* 33 (July 1983), pp. 22ff.

는 전 배아를 통한 장기 생산이 윤리적으로는 합리화되므로 허용될 수 있다.

생명 공학은 신본적 윤리에 따라야 한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창조자이신 만큼 그분의 뜻에 순응하는 과학 기술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 첫째 생명 공학은 창조의 질서에 따라야 한다. 인간 복제란,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대한 명백한 도전 행위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식의 질서인 성을 통한 번식을 거부하는 것이며 인간의 생물적 체계를 뒤흔들어 놓는 것이다. 인간 복제는 장기 생산에 한정시킨다고 하더라도 인간 수명을 무진장 연장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에 의하여 지배되며 장기 생산에 사용되는 복제 배아의 존엄성은 여지없이 유린되는 것이다. 둘째, 생명은 인본적으로 조작될 수 없다. 생명 공학은 유전병을 고치는 목적 등 인간 유익을 위하여 사용될 수는 있으나 인간의 호기심이나 이기심, 상업적인 목적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셋째, 생명 공학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을 명료히 밝혀야 한다. 유전자 조작 식품과 천연 식품은 구별되어야 한다. 결국 양자가 혼돈됨으로써 인간과 자연 생명의 질서에 혼란이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 넷째, 생명 공학 분야의 분명한 가이드 라인이 설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 복제에 관한 연구는 엄격한 정부 차원의 법령하에 규제하고 체세포 복제 기술을 통한 난치병 치료 차원의 배아의 간 세포 배양 등의 연구 문제는 공개적인 논의를 거침으로써 기독교 윤리적인 차원에서 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3) 삼위일체론적 생태 윤리

개혁 신앙은 오늘날 자연 친화적인 문화를 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개혁 신앙은 자연을 하나님의 창조로 보기 때문이다. 창세기는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라는 동산의 청지기로 지음을 받았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인간은 자연과 분리해서 존재할 수 없고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 그러므로 21세기의 환경 친화적인 운동은 개혁 신앙의 환경 운동과 근본적으로 그 맥을 같이 할 수 있다. 환경 운동가들은 지구와의 약속 10가지³⁴를 제안하고 있다: 대중 교통을 이용합니다, 유기 농산물을 먹습니다, 모피 옷을 입지 않습니다, 절수 기기(변기, 수도꼭지, 샤워기)를 이용합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을 사용합니다. PVC 장난감을 사지 않습니다, 일회용 장난감을 사지 않습니다, 일회용 제품을 사

³⁴ “지구와의 약속 10가지”, 『국민일보』, 2000년 4월 21일, 23면.

용하지 않습니다, 쓰레기는 분리 수거하고 재활용합니다, 1년에 나무를 한 그루 이상 심고 가꿉니다, 환경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그러나 개혁 신앙은 이러한 지구와의 약속을 실천하는 것을 넘어서서 생태 윤리의 기본 이념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가이아 이론에서 말하는 바 같이 자연을 지구 오염을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을 지닌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는 것이다. 개혁 신앙은 환경 친화적이나 가이아 이론처럼 자연을 신적인 존재로 보는 범신론적 자연관이 하나님 아닌 피조물을 신격화하는 그릇된 것임을 보여 준다. 그뿐 아니라 오늘날 환경 재앙을 초래한 지난 20세기의 환경 이념인 세속주의적 자연관에 대해서도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 아니라는 점을 역설한다. 자연의 주인은 그 대지에 대하여 법원의 등기소에 등기를 필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라는 것이다. 인간은 땅의 주인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위탁한 자연을 관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신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성부는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성자는 인간에 의하여 소외되고 황폐한 땅을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하신 분이시며, 성령은 창조자 성부와 구속자 성자의 영으로서 오늘날 자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의 힘과 영으로서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다. 개혁 신앙의 생태 윤리는 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관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신앙에 근거하고 있다.

4) 타종교에 대한 포용적, 변혁적 태도

오늘날 기독교는 남녀의 동반 관계 수립, 환경 문제 대처, 세계 평화의 촉진 등 인류의 새로운 과제에 어떻게 기여할 것이냐라는 윤리적인 중대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기독교는 21세기 새로운 인류 사회의 변화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이미 많은 지역에서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기독교는 새 시대의 세계화에 기여해야 한다. 진정한 세계화란 경제·금융·기술·정치적 차원만이 아니라 윤리적 측면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 더 나은 세계 질서는 단순히 외교적 수단이나 군사적 개입, 인도적 원조, 국제법 등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인류가 함께 따를 수 있는 보편적인 윤리의 확립을 필요로 한다. 이런 세계 윤리는 인류 공통의 이상과 가치관, 기준, 세계에 대한 강한 책임감에 바탕해야 하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입각해서 가장 적합한 윤리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유교 등 고등 종교들은 그 가르침에 있어서 비폭력과 생명에 대한 존중, 관용과 진실성, 연대와 정의로운 경제 질서, 남

녀의 평등 관계 등 세계 윤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³⁵

이런 점에서 개혁 신앙은 보편 윤리의 형성의 면에서 타종교를 인정하고 공동 보조를 취한다.

개혁 신앙은 21세기의 종교 문화 속에서 타종교에 대하여 포용적, 변혁적 태도를 갖는다.³⁶ 그것은 내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라는 신앙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외면적으로는 세계 종교 문화 속에서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열린 태도이다. 포용적, 변혁적 태도는 제도적이고, 기구적 측면에서는 기독교의 상대성을 인정하면서 인간의 죽음과 영생에 관여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도 타협없이 전파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인간적으로는 타종교인들과는 융화하고 공존을 시도하면서 기독교가 지닌 종교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복음, 영생과 부활에 관해서는 타종교가 지니지 아니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사회 사업적인 측면에서 기독교인은 타종교인들과 공동선을 위한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개인이 지니는 죽음과 영생의 문제에 대하여 기독교 신자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진지한 진리에 대한 증언의 태도를 보여 준다.

5) 지구촌 윤리

21세기 인류는 아직도 빈곤과 에이즈 등 질병 퇴치, 분쟁 예방, 환경 보호 등의 인류적 과제를 안고 있다. 세계화의 혜택이 모든 인류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³⁷ 2000년 4월 3일 유엔 사무 총장인 코피 아난은 총회의 188개 회원국에게 제출한 “뉴 밀레니엄 보고서”에서 2015년까지 이 극빈층과 오염된 식수 사용자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2010년까지 에이즈 유발 HIV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젊은이들을 지금보다 25% 감소시키고, 2015년까지 에이즈 확산 완전 차단을 위해 효과적이고 저렴한 에이즈 백신을 서둘러야 한다. 모든 어린이들의 초등학교 교육 이수율 남녀 교육 평등을 이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저개발 국가 상품에 대한 무관세, 무쿼터 정책을 이끌어 내기 위해 준비해야 하며 최빈 국가의 부

³⁵ Hans Küng, *Projekt Weltethos*, (Piper, München u. Zürich, 1991), 51-57; 한스 쿡, “교회는 쇠퇴해도 일반인 ‘종교 관심’은 더 늘 것”, 세계 석학 21인이 본 21세기(17), 조선일보, 2000년 1월 31일, 19면.

³⁶ 김영한, 『한국 기독교 문화신학』, (서울: 성광문화사, 1995), 174-177, 294-295.

³⁷ Hans Küng, 93-96.

채 탕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선진국에 요청했다. 온실화 유발 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교토 의정서가 2002년 발효될 수 있도록 각국 정부가 의정서를 비준해 줄 것을 요청했다.³⁸

이들 최빈국들이 서방 세계에 진 채무는 3천5억 달러에 이르고 이들 대부분은 IMF와 세계은행의 채권이다. 구체적인 부채 탕감 규모나 방법은 간단하지 않다. 과거의 경험에서 볼 때 일방적인 부채 탕감은 가난한 민중 대신 부도덕한 정권이 나 배불릴 것이라는 의견이다.

새 천년, 선진국과 후진국은 서로 공존하는 지구촌의 윤리를 마련해야 한다.³⁹ 선진국은 후진국이 발전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자신도 발전을 계속할 수 없다. 선진국은 후진국의 소비 시장과 자원 개발이 없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곤란하다. 선진국과 후진국이 환경 문제와 에이즈같은 전염병 등의 세계 공동 문제를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없다. 공동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 기술의 공유가 필요하다. 선진국은 지적 재산을 일반 상품처럼 취급하지 않고 “세계 공동 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 구체적인 실례가 미국과 영국이 합작으로 개발하고 있는 게놈 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의 유전자 지도가 완성되면 이것을 세계 앞에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후진국은 선진국에 대하여 투자, 원조 증가, 부채 탕감 등을 요구하기 전에 투자 여건 조성, 부정부패 척결, 경제 구조의 자유화 등을 서둘러야 한다. 선진국이 시도하고 있는 세계화의 정신은 전 지구가 하나의 마을이라는 개념이다. 진정한 세계화란 20세기처럼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거나 수탈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자기의 능력에 맞게 세계적인 교역과 협력에 평등하게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편타당한 지구촌 윤리 정립에 개혁 신앙은 그 윤리적 이념을 제공할 수 있다. 개혁 신앙이 지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입각한 일반 은총과 하나님의 십계명과 사랑의 계명은 이러한 윤리 정립의 가이드 라인을 제공한다.

맺음말

21세기는 하나님이 창조시 인간에게 부여한 문화적 명령이 실현되는 세기이다.

³⁸ 토피 아난, “빈곤, AIDS, 환경, ... 21C 인류 숙제”, 『조선일보』, 2000년 4월 5일, 10면.

³⁹ Kung, *Projekt Weltethos*, 63-79.

그러므로 개혁 교회는 오늘날의 문화가 지닌 부정적인 면, 반신론적이거나 무신론적이거나 세속적 인본주의적 문화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보면서 오늘날의 문화에서 퇴각해서는 안 된다. 개혁 교회와 신자는 오히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상 문화의 구속자이시며 변혁자이시며 완성자라는 문화 신학적 명제를 가지고 오늘날 인류를 지배하는 5개 중요한 문화의 영역, 사이버 문화, 생명의 문화, 생태 문화, 종교 문화, 공동 삶의 문화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문화적 명령을 실현시키는 문화의 대사가 되어야 한다. 이 영역에서 교회와 신자들은 이 시대의 문화에 영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문화적 지침에 따라서 이 시대의 문화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변혁시키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여야 한다.